스님 유튜브 법문, 일본서 인기

3년간 누적 조회수 340만 회 상회

스마데라 부주지 요진 스님
재일법회 법문 격주 업로드
유튜브로 설법대회 개최도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고베시에 소재한 천년고찰 스마데라(須磨寺). 이곳의 부주지 코이케 요진 스님이 '유튜브'를 이용해 전파하는 법문이 조용히 인기를 끌고 있다. 업로드 된 법문의 총 누적 조회수는 이미 340만 회를 넘겼다. 지난 10월 5일 일본의 'IT 미디어 뉴스'는 유튜브 법문으로 포교활동에 열심인 요진 스님의 활동을 보도했다.

요진 스님이 유튜브 영상을 결심한 것은 3년 전. 스마데라 인근에 사는 웹디자이너에게 "요즘 사찰들은 모두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열중이지만, 앞으론 동영상이 뜰 것"이라는 조언을 받고 부터다. 당시 불교계에서 동일한 주제의 동영상을 꾸준히 업로드 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요진 스님은 "일본에서 사찰은 장례나 제사와 같은 의식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진정한 불교는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라며 법문을 중심으로 영상을 구성하기로 결심했다고 회상했다.

스님은 매달 스마데라의 재일법회에 참여한 신자들에게 법문을 하는 형태로 촬영을 시작했다. '스마데라 코이케 요진의 수상록'이라고 채널의 이름을 짓고, 격주로 법문영상을 업로드 했다. 유튜브를 시작했을 당시 조회수는 두 자리 수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다. 스님은 "보통 사찰에서 진행하는 법문은 1시간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법문은 10분을 넘기면 조회수가 급도로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법문을 하다 보니 생각한 시간을 항상 넘겨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말할지, 누구에게 무엇을 전할 지를 항상 고민한다"고 말했다.

현재 스님의 유튜브 구독자는 2만 4천명, 누적조회수는 343만 7천여 회에 이르고 있다. 유튜브 분석에 따르면 전체 구독자중 가장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40대와 60대, 20대는 아직 3%가량이다. 스님은 "한번은 유튜브를 구독하는 80대의 노보살님이 나를 직접 보고 싶다며 직접 방문하신 적도 있다"며 다양한 연령층이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에 올리는 법문을 편집하는 요진 스님. 사진출처=IT미디어 뉴스

요진 스님은 "불교를 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법문"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법문을 콘텐츠로 유튜브 이외에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종파를 초월해 8명의 스님들이 각 10분 간 법문을 하고 대중들의 평가를 받는 설법대회를 열었다.

본래 설법대회는 교계 내에서 젊은 스님들끼리 진행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대중적으로 공개하면서, 스님은 "법문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울려서 '다시 법문을 듣고 싶은 스님'을 선정하는 것이 대회의 취지"라고 전했다. 실제 대회는 큰 반향을 일으켜 전체 420석의 참석티켓이 불과 10여 분만에 매진 됐다.

스님은 "올해도 설법대회를 준비했으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중단됐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대신 요진 스님의 주도로 종파를 초월한 스님 33명이 법문영상을 촬영해 차례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법문 순례 33'을 준비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 식용소 국내 도축 금지

불교 등 종교계 압박 영향
지속적인 요구 정부가 수용

스리랑카 정부가 국내에서 소의 도축을 금지하고 나섰다. 지난 9월 29일, 'AFP 뉴스' '더 힌두'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정부를 압박해온 불교계와 힌두교계의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초 스리랑카의 집권여당인 SLPP(스리랑카 인민전선)는 의회에 소 도축 금지를 발안했다. 대다수의 여당의원들이 찬성하였으나, 여러 쟁점에서 내각승인이 늦어지던 것이 최종적으로 지난 29일 통과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도축용으로 키워지거나 도축이 준비되던 소들을 보호할 시설이 확립된 후 즉각 시행된다. 다만 내수 소비를 위해 수입산 소고기 연간 120톤 정도는 허용된다. 현재 스리랑카 전국에는 150만 두의 소와 47만 두의 물소가 사육되고 있다.


길가에 방목되고 있는 스리랑카의 소들. 사진출처=AFP 뉴스

이번 조치는 스리랑카 내 주류 종교인 불교와 힌두교 단체의 지속적인 압박의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미 스리랑카 불교계에서는 오랫동안 도축금지를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불교계의 지속적인 압박은 1958년 스리랑카 내에서 12세 미만 소의 도축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불교계는 완전한 도축 금지를 요구했고, 지난 2013년엔 한 스님이 소 도축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며 분신하여 파문이 일었다.

스리랑카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외신들은 "이번 조치는 소고기의 주 소비층이자 도축업의 주요 사업자인 기독교인과 이슬람교도들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축업에 주로 종사하는 이슬람교도들은 "소수종교를 경제적인 힘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또 이번 조치로 소고기를 유통하는 업자들의 피해와 육류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클 것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는 "지나친 도축으로 전통적인 낙농업에 필요한 가축자원이 부족하다는 농가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반박하면서, 소 도축에 의한 낙농업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인도 UP주, 순례길 관광개발 착수

카우삼비 지역 유적 등
관광벨트화…명상센터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州) 관광부가 고대 도시인 카우삼비(Kaushambi) 지역 등에 있는 관광지를 불교 순례길과 연계해 개발할 방침이다.

주 관광부가 인도 정부의 '스와데시 다르샨(Swadesh Darshan)' 구상에 따라 이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인도 월간 잡지 스와라쟈(swarajya) 등이 10월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와데시 다르샨은 인도 정부가 고대 관광지의 잠재력을 촉진,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2014년 착수한 프로젝트다.

주 관광부 차장은 "이와 관련한 제안서가 주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곧 제출될 것"이라며 "산림 · 예산 · 관광 등 다른 부처들과 연계해 종교 · 역사적으로 중요성이 있는 여러 구역에 대해 정교한 조사를 실시, 제안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포함된 불교 순례길은 고타마 부처님이 탄생한 네팔의 룸비니부터 처음 깨달음을 얻은 비하르의 보드가야, 첫 설법을 한 사르나트, 열반한 쿠시나가르 등이 있다.

해당 프로젝트의 설계자는 "만약 이 제안이 정부에 의해 승인된다면 우리는 불교 관광 명소를 추가할 계획"이라며 "웅장한 명상 센터를 포함해 관광객들을 위한 화장실, 식당, 대합실, 수공예품 시장, 상점 등 공공 편의시설과 야외 극장, 물놀이장,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환전소 등도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관광명소 대부분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관광객들을 명상센터까지 실어 나르는 자체 전기 오토릭샤(E-rickshaw) 서비스도 론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객원기자

코로나19 속 온라인 통해 자비행 실천

스리랑카 불교구호단체 BGR
빅쿠 보디 스님 주도로 활동



불교국제구호단체(Buddha Grobal Relief, BGR)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해 10월부터는 온라인상에서 기아 구호 활동을 펼친다.

매년 전 세계 기아들을 위해 걷기 모금 운동을 펼쳤던 불교국제구호단체(Buddha Grobal Relief, BGR)가 10월부터는 온라인상에서 기아 구호 활동을 펼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걷기 캠페인이 불가능해지자 새로운 방법을 강구한 것.

불교 온라인 매체 라이언스로어(Lion's roar)가 9월 2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BGR은 최근 온라인 기아 구호 활동인 '전 세계 기아들을 위한 불교 행동(Buddhist Action to Feed the Hungry)'을 마련했다.

당초 BGR의 주요 활동은 걷기 캠페인인 '기아들을 위한 걸음(Walk to Feed the Hungry)'이었다. BGR은 전 세계 각지를 걸으면서 국제 기아 문제를 알리고 모금 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올해 전 세계에서 창궐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이 같은 캠페인이 어려워지자, BGR은 온라인상 이벤트를 마련했다.

미국 전역의 스님들과 불교센터들이 힘을 합쳐 BGR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국제 기아 문제 관련 강연, 저명한 불교 스님들의 다르마 강연, 생중계 다르마 모임 등을 주최한다.

BGR 설립자이자 스리랑카 출신 미국인 스님 빅쿠 보디(Bhikkhu Bodhi)는 기아 구호 활동을 펼치는 이유로 "부처님은 '굶주림보다 더한 병은 없다'고 가르치셨다. 양심 있는 불교도라면 궁핍한 사람에게 식량의 마지막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주어야 한다고 하셨다"며 "스리랑카에서 스님으로 출가한 첫 해에 내가 그와 같은 개인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아들을 후원하기로 했다"고 라이언스로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당시 나의 스승님이 금욕적 생활을 강조하면서 먹을 것을 거의 주지 않았다"며 "그때 느낀 것은 맛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육체적 필요에 의한 갈망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론 나는 기아들의 상황과는 달랐지만, 영양소가 부족할 때 찾아오는 우울함과 공허함이 어떤 기분인지 안다. 그들의 고통과 내 마음의 끈이 연결돼 있다고 믿고 나는 기아 구호 활동을 펼친다"고 덧붙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원당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사부대중일동
〈법회안내〉
■철 야 용맹정진 ·매월 1,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7일 철야 용맹정진 ·음력 7월 1일 ~ 8일 / 음력 12월 1일 ~ 8일
■재가불자 참선결제 ·동안거 결제 음.10월 15일 ~ 1월 15일
·산 철 결 제 음. 2월 15일 ~ 3월 29일
·하안거 결제 음. 4월 15일 ~ 7월 15일
·산 철 결 제 음. 8월 15일 ~ 9월 30일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치인리) http://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전송 055)931-7515 (상담시간 : 오전 8시 ~ 오후 6시)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중동) | 전화 053)767-3100 | 팩스 053)765-1600